

국민의힘 '혁신 바람'... 민주당 쇠신은 언제?

국힘, 중진 불출마·대표 사퇴에 '김포 편입' 등 총선 이슈 선점
민주, 이재명 대표 통합 행보에도 신당 논란·당내 갈등 파열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 대표 사퇴 등 '인적 쇠신'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인적 쇠신'을 포함한 혁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쇠신 경쟁에서 자칫 국민의힘에 우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전하 당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의힘에 '김포 편입' 등 총선 이슈 선점과 '혁신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면서 내년 총선에 대한 불안감도 짙어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김기현 당 대표 사퇴를 시작으로 빠르게 총선을 대비한 인적 쇠신과 당 혁신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장 의원의 불출마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회의 '주류 희생' 요구에 화답한 첫 사례로, 또 다른 주류 인사들의 결단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당 대표를 사퇴한 김기현 의원 등 지도부와 친윤 그룹, 영남 중진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장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만큼, 후속 선언을 통해 인적 쇠신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는 과정에 당내 의원들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지만, 비대위가 꾸러질 경우 총선 승리를 위해 인적 쇠신 등 당내 혁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인적 쇠신이 이뤄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혁신의 시간은 빠르면 1월 중순에서 2월 초순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총선 때마다 거듭됐던 3선 이상 중진과 '86' (80년대 학번·60년대생) 의원들을 향한 용퇴론은 이번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은 국회

의장을 지낸 6선 박병석 의원과 '86' 대표주자 중 한 명인 4선 이상호 의원을 제외한 4명이 모두 초선(강민정·오영환·이탄희·홍성국)인 상황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민주당이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논란 등 내홍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고, 당내 갈등도 여전하면서 인적 쇠신이나 혁신이 뒷걸음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단일 대외와 당내 화합'을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민주당 내 혁신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이 대표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는 등 당내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진윤' 핵심 의원으로 꼽히던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상황에서 민주당 역시 '혁신'의 물꼬

를 터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주류 세력은 김기현 대표 사퇴의 의미를 축소 해석하는 등 적극 방어하고 나서면서 여전하 당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최근 계파 갈등 및 내부 파열음에 따른 원심력을 차단하기 위해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 연쇄 회동을 추진하는 등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단일 대외와 화합 아래 총선을 대비하자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제 비명계를 끌어 안는 등 실질적인 통합책 마련, 개발 중심의 공격적인 팬덤 현상을 없애는 혁신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 15명이 1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이낙연 신당은 정치적 반란행위”

광주·전남 총선 출마 20명
신당 창당 반대 기자회견
민주당내 반대 의원 117명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일부 정치 신인들도 '이 전 대표 신당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총선 출마 예정자 20명

은 18일 이 전 대표의 창당 행보를 '폭주'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해 "이 전 대표의 창당은 개인의 사욕으로 국민적 염원인 윤석열 검사 독재 종식의 희망을 꺾는 정치적 반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광주지역 출마 예정자 정진욱·안도걸·이정락·양부남·최희용·정준호·전진숙·조현환·박균택·정재혁·최치현과 전남지역 출마 예정자 조계원·최영호·김문수·박노원·김병도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주당에서 수십 년간 따뜻한 아랫목은 다 차지하며 온갖 호사를 누린 이가 검사 독재 정

권 심판이라는 시대정신과 대의명분을 저버린 채 사욕을 쫓아 창당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며 "지금이라도 분열의 발걸음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과 폭주에 한번이라도 소리 높여 비판하고 싸운 적 있느냐"며 "이 전 대표의 고향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전남 지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려면 민주당은 일치단결해야 한다"며 "분열을 획책하는 이는 시대정신과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욕만을 채우기 위해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 낭인으로 추락할 것인가, 국민과 역사에 헌신하는 정치가가 될 것인가는 오롯이 이 전 대표에게 달려 있다"며 "민주당 원로가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창당의 폭주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이 전 대표 창당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단체 채팅방 내 창당 반대 의원은 이날 기준 117명에 달했다. 초선 의원 중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에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추진 중단 호소문'을 올리고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호소문에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추진은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 오전 7시 41분
전남 고흥 7시 36분

2024년 광주에서 뜨는 첫 해는 오전 7시 41분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전남에서는 7시 36분 고흥 외나로도에서 첫 해를 맞을 수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18일 전국 주요 지역의 올해 12월 31일 일몰 시각과 내년 1월 1일 일출 시각(해발고도 0m 기준)을 18일 발표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늦게 해가 지는 곳은 신안 가거도로, 오후 5시 40분에 해가 모습을 감출 전망이다. 육지에서는 진도 세방낙조(오후 5시 35분)에서 가장 늦게 일몰이 진행된다.

전남지역 일몰 시각은 고흥 외나로도 오후 5시 29분, 영광 가마미 오후 5시 31분, 무안 도리포 오후 5시 32분, 해남땅끝마을 오후 5시 34분, 완도 보길도 오후 5시 34분, 신안 흥도 오후 5시 38분 등이다.

일출은 고흥 외나로도 오전 7시 36분, 해남땅끝마을 오전 7시 40분, 완도 보길도 오전 7시 40분, 진도 세방낙조 오전 7시 42분, 영광 가마미 오전 7시 43분, 무안 도리포 오전 7시 43분 등으로 예고됐다.

일출시각은 해발고도가 높을수록 더 빨라질 수 있다. 해발고도가 100m 높아지면 실제 일출시각은 발표시각보다 2분여 빨라진다.

각 지역 일출·몰 시각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 지식정보 홈페이지 생활천문관(<http://astro.kasi.re.kr/life/pageView/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청년·중년층 고독사 대책 마련 시급 ▶6면

굿모닝 예향 - 구멍가게가 사라진다 ▶18·19면

광주FC 이순민, 클린스만호 승선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태양·바다·호수를 품은 '관광레저, 에너지산업'의 최적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Dynamic

레저, 스포츠
젊음과 역동성

Energy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

Joy

정원, 리조트, 수변
즐거움과 자유로움

Wealth

건강, 먹거리, 워케이션
풍요와 여유

구성지구

스마트, 정원, 에너지

삼호지구

골프산업 중심의
관광레저

삼포지구

모터스포츠,
자동차부품